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 채용 숫자, 예상 초월... 5월 27만8천개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여전히 강한 노동 수요
- US LaborStatistics: 올해 1분기 비농가 생산성 2.1% 감소
- WSJ: “연준, 6월엔 중단하고 추후 금리 인상”
- Bloomberg: 연방부채상한선 법안 하원 통과... 상원도 예상돼

#### [미국 자동차]

- CNBC: 미 인플레이와 높은 이자율, 미 자동차 구매 행태 바꾼다

#### [미국 생활]

- CNN Business: 결혼식 평균 비용 2만 9천 불 기록

#### [AI 이슈]

- Bloomberg: 월가 은행들, AI 이용해 금융 세계 재편 시도
- Time: 세상은 AI 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by. Dr. Ian Bremmer: president of Eurasia Group

#### [중국 경제]

- CNN Business: 중국 중소 공장 급 성장... 시장 불안 완화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Macy's 와 Costco “미국 경제 경고”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Hiring at US Companies Tops All Forecasts, ADP Data Show** 미 기업 채용 숫자, 예상 초월... 5월 27만8천개

- 지난달 미 기업들의 채용 증가세가 예상을 크게 초과했다. 미 경제를 바쳐 주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 ADP가 Stanford Digital Economy Lab과 오늘 목요일 공동 발표한 데 따르면 5월 민간 채용 숫자가 27만8천개. 4월에는 수정치로 29만1천개였다. 연속적으로 고용시장이 탄탄한 상황이다.
- 5월 일자리 상승은 레저와 숙박 등 환대산업이 주도했으며 광업, 건설업, 무역 및 운송업도 인력을 늘렸다.
- 반면에 임금 상승세는 둔화하였다. 2천5백만명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계속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이는 전년 5월 대비 6.5% 상승, 일자리 바꾼 이들의 경우 평균 12.1%로 임금 상승률이 줄고 있다

## May Employment

Hiring at US companies topped all forecasts

Sector	Monthly change in employment
Leisure/hospitality	208,000
Natural resources/mining	94,000
Construction	64,000
Professional/business services	-5,000
Financial activities	-35,000
Manufacturing	-48,000

Source: ADP Research Institute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Jobless Claims Tick Up, Still Show Strong Labor Demand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여전히 강한 노동 수요

- 지난 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여전히 강한 노동 수요를 보여준 것이다.
- 이번 주 목요일 미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천 건 증가한 23만 2천 건이었다. 현재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사람들의 전체 수는 180만 명이다(5월 셋째 주 기준).
-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주 금요일 미 정부가 '5월 고용이 약 20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고용 속도는 완만하지만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loomberg 기사

### US LaborStatistics: Nonfarm business sector labor productivity decreased 2.1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of 2023 올해 1분기 비농가 생산성 2.1% 감소

- 오늘 목요일 발표된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농가 사업부문 노동생산성이 2.1% 감소했다.
- 즉, 비농가 사업부문 단위 인건비가 2023년 1분기에 4.2% 증가하고 생산성이 2.1% 감소했다.
- 생산량은 0.5% 증가한 반면에 근로 시간은 2.6% 늘었다.

## US LaborStatistics 기사

## WSJ: Fed Prepares to Skip June Rate Rise but Hike Later “연준, 6월엔 중단하고 추후 금리 인상”

- 연준 관리들은 시사했다. 올여름에 금리를 다시올릴 준비를 하기전인 6월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 최근 며칠 동안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 13~14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번주 수요일에 두 명의 정책 입안자가 금리 인상 중단을 선호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보였다.
- 이 같은 일시 인상 중단 입장은 연준의 10차례 연속해 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와 최근 은행권의 스트레스를 평가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위한 것이라는 것.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5%포인트 인상했으며, 가장 최근인 5월 3일에 16년 만에 최고치인 5%에서 5.25% 사이로 인상했다.

WSJ 기사

## Bloomberg: Debt-Limit Deal Passes the House, Easing US Default Concerns

### 연방부채상한선 법안 하원 통과... 상원도 예상돼

-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Kevin McCarthy이 주도한 1) 내년까지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2) 불안정한 미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한 부채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3백14대 1백17표.
- 상원에서도 통과될 이 법안의 상원 통과로 바이든에게는 실용주의와 당파 초월 성과를 과시하게 하고 McCarthy엔 하원의장으로서의 성공을 거두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에서도 3분의 2 찬성을 거둔 것이다.
-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 약화 조짐 등 다른 불확실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자동차]

## CNBC: How inflation and higher interest rates have reshaped car buying for many Americans

### 미 인플레이와 높은 이자율, 자동차 구매 행태 바꾼다

- 인플레이와 높은 이자율로 많은 미국인이 신차 대신 중고차를 선택하거나,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현재 차를 수리하고 있다.
- 중고차 가격은 작년 초부터 인플레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택, 중고차,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0.4% 상승했다.

- 신차 및 중고차 공급 부족으로 인해 차량 가격은 이미 높은 상황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과 공급망 문제 때문이다.
- 데이터 분석 회사인 Cox Automotive은 “현재로서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신용이 낮은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 관련으로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 [미국 생활]

#### **CNN Business: The average wedding just hit \$29,000** 결혼식 평균 비용 2만 9천 불 기록

- 온라인 웨딩 플래닝 사이트 Zola에 따르면 올해 전국 결혼식 평균 비용은 2만 9천 불이다. 전년 대비 1천 불 증가했다. 미국 일부 대도시에서는 3만 5천 불 이상의 비용이 든다.
- Zola는 인플레이와 수요를 원인으로 꼽았다. “웨딩 업계 공급업체는 상품과 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Zola의 디렉터가 말했다.
- 결혼식은 팬데믹으로 중단된 후 다시 시작되었다. 때문에 웨딩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맞춤형 결혼식에 대한 Z 세대의 욕구로 결혼식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 [AI 이슈]

#### **Bloomberg: Wall Street Banks Are Using AI to Rewire the World of Finance** 월가 은행들, AI 이용해 금융 세계 재편 시도

- 도이치뱅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돈 많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있다. ING Group NV는 잠재적 채무 불이행자를 선별중이다. 모건 스탠리는 은행원들이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JP모건 체이스는 경쟁사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 직책을 광고하면서 관련 인재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 월가에 AI에 따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컨설팅업체 Evident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분야 관련 가장 열정적인 은행들의 경우 전체 채용 공고 건수 중 약 40%가 데이터 엔지니어, Quant(계량적 분석가) 등 AI 관련 채용 및 윤리 및 가버넌스 직책이라는 것이다.

- 특히 JP모건은 선두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세계적으로 3천6백51개 AI 관련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는 경쟁사인 씨티그룹이나 도이치뱅크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채용 공고 숫자다.

## Bloomberg 기사

### Time: How the World Must Respond to the AI Revolution

#### 세상은 AI 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Dr. Ian Bremmer: president of Eurasia Group

- 개인의 엄청난 활용 효과도 있는데 동시에 AI 혁명은범죄자, 테러리스트 및 기타 악의적 파괴자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고, 생물무기를 만들고, 금융 시장을 조작하고, 여론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왜곡할 수 있는 힘을 주게된다.
- 또한 AI는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부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소수 집단 사이에 또한 부국과 빈곤국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킬수 있다.
- AI는 인력에 혼란을 만들수 있다. 직장에서의 큰 시술 변화 때문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파괴된 일자리와 다른 기술을 요구하면 근로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쉽지 않은 일이다.
- 이같이 AI에 따른 변화는 과거의 변화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격변을 일으킬 것이다.
- 마지막으로 AI 혁명은 정서적, 정신적 비용을 초래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AI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동반자 관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대응]

- 이러한 도전에는 글로벌한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부 당국이 아닌 기술 기업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소비자나 국가나 환경 보호가 아닌,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한다.
- 해결 방법은? 국가적인 행동, 글로벌한 협력, 특히 미국과 중국의 상식에 준하는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앞으로는 정치 조직체, 금융 시장,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AI 봇의 능력을 제한하기보다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악의적인 행위자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진짜와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특히 UN이 글로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 또한 예컨대 기후변화와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같은 AI중심 협의체, 그리고 공공 정책 관계자, 과학자, 전문가들, 대부분의 회원국을 대표하는 개인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 안보, 정보의 자유, 노동력 건강 등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국 총회(COP) 절차 마련,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 기관을 설립해 인공지능 확산을 단속할 수 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과 주요 기술 기업간의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AI 무기 통제 협정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 경쟁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작동하는 무기 통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면, 미국과 중국도 21세기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두 나라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번역: 민경용 부장

Time 기사

## [중국 경제]

### CNN Business: China's small and medium-sized factories post surprise growth, easing market anxiety

#### 중국 중소 공장 급 성장... 시장 불안 완화

- 중국 중소 공장들이 지난 달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시장 불안을 완화시킨 것이다.
- 중국의 Caixin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PMI가 4월 49.5에서 5월 50.9로 상승했다. 이는 2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경기가 확장됐음을 의미한다(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경기 위축).
- 반면에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주로 대기업과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제조업 PMI는 4월 49.2에서 5월 48.8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CNN Business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Macy's and Costco sound a warning about the economy

#### Macy's 와 Costco “미국 경제 경고”

- Macy's 와 Costco, 기타 대형 체인점들은 고객들이 매장에 발길을 돌리고, 구매 품목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 이번 주 목요일 Macy's는 연간 수익과 매출 예측을 낮췄다. 3월 고객 수요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다른 백화점인 Bloomingdale's는 3.9% 감소했다.
- Costco의 재무 책임자 Richard Galanti는 지난 주 일부 고객이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와 닭고기 같은 저렴한 육류를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 경기 침체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추세이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본회의 통과...디폴트 우려 완화"****찬성 314표 vs 반대 117표...바이든, 환영·상원 신속 처리 촉구  
"상원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기가 문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추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71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3분의 2 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